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2019년12월30일 | 책임조사역(G3) 윤서희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 | | | |
|--|---|---|--|
| 면적 84천 km ²  | 인구 10.7백만 명 (2019 ^e)  | 정치체제 군주국 연방제  | 대외정책 친서방  |
| GDP 4,058억 달러 (2019 ^e)  | 1인당GDP 37,750 달러 (2019 ^e)  | 통화단위 UAE Dirham  | 환율(\$기준) 3.6725 (고정환율)  |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 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emirate)으로 구성된 연합왕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하며 이란과는 페르시아 만을 사이에 두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 경제는 GDP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에 이은 역내 3위(세계 29위)이며, 1인당 GNI 기준 카타르에 이은 역내 2위(세계 24위)의 경제부국으로, 세계 8위 규모의 풍부한 원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바탕으로 성장해옴.
- 한편, 저유가 상황 장기화로 석유의존도를 낮추고자 기업 친화적인 정책 및 개방적 경제체제를 추진한 결과 기업경영여건 순위 세계 16위(역내 1위)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또한 역내 최대 수준임.
-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는 아부다비의 군주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 통치 하에 정치적·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관계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0. 6. 18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04), 이중과세방지협약('05), 군사협력협정('07),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08), 문화협력협정('08),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0), 항공협정('10), 세관협력협정('15), 사증면제양해각서('16), 범죄인인도조약('17), 형사사법공조조약('1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 구분 | 2016 | 2017 | 2018 | 주요품목 |
|----|-----------|-----------|-----------|----------------------|
| 수출 | 5,869,962 | 5,388,883 | 4,588,472 | 레일 및 철 구조물, 자동차 및 부품 |
| 수입 | 6,941,053 | 9,557,058 | 9,287,378 | 원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 9월말 누계) 460건, 1,799,000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경제성장률 | 5.1 | 3.0 | 0.5 | 1.7 | 1.6 |
| 소비자물가상승률 | 4.1 | 1.6 | 2.0 | 3.1 | -1.5 |
| 재정수지/GDP | -3.4 | -2.0 | -1.4 | 1.2 | -1.6 |

자료: IMF, EU

비석유 부문 육성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은 1%대 전망

- 두바이는 2020년 엑스포 개최, 아부다비는 경기부양 및 비석유 부문 육성을 위한 136억 달러 규모 투자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다변화를 추진 중인 바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1.6%로 적자 전환이 전망됨.
- 이외에도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산업다변화를 이루고자 2019. 7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및 의료·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장기거주 비자 제공 및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함.
- 다만, 이러한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석유 부문이 여전히 GDP의 26%를 차지(2018년 기준)하고 있으며, 저유가 상황 지속 및 OPEC 감산 합의 이행 등 석유 부문의 부진의 영향으로 2019년 아랍에미리트의 경제성장률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소폭의 디플레이션 전망

- 아랍에미리트는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부다비 및 두바이의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하락의 영향으로 소폭의 디플레이션(-1.5%)이 전망되나, 2020년에는 다시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경 상 수 지 | 17,525 | 13,199 | 27,465 | 37,844 | 30,082 |
| 경상수지/GDP | 4.9 | 3.7 | 7.3 | 9.1 | 7.4 |
| 상 품 수 지 | 76,559 | 55,105 | 67,193 | 81,541 | 76,287 |
| 상 품 수 출 | 300,436 | 294,991 | 313,504 | 316,880 | 317,509 |
| 상 품 수 입 | 223,877 | 239,886 | 246,311 | 235,339 | 241,222 |
| 외 환 보 유 액 | 92,572 | 84,383 | 94,354 | 98,412 | 103,131 |
| 총 외 채 | 225,007 | 252,756 | 278,058 | 287,079 | 290,928 |
| 총외채잔액/GDP | 62.8 | 70.8 | 73.6 | 69.3 | 71.7 |
| D.S.R. | 9.5 | 11.1 | 10.9 | 11.4 | 12.0 |

자료: IMF, EIU

높은 석유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

-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였던 2011~13년 간 아랍에미리트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19.7%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국제유가 급락 이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동 비중은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에는 상품수출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7.4%에 달하는 등 국제수지 포지션이 양호한 수준임.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큰 편

- 외환보유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 외채상환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아울러 재정 적자 충당을 위해 국채를 발행한 결과 총외채잔액이 소폭 상승하였음.

구조적취약성

석유 부문에 편중되어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경제다변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부진 및 OPEC 감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저조한 편이며, 석유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관계로(2018년 기준 26%)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님.
- 연평균 국제유가가 가장 높았던 2012년(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11.57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각각 19.7% 및 9.0%를 기록하였으나, 연평균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1.34달러까지 떨어졌던 2018년에는 9.1% 및 1.2%로 대폭 위축되었음.
- 2019년 평균 국제유가는 2018년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더욱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 수치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전망(달러/배럴) : ('18) 71 → ('19) 64 → ('20) 57 (자료: IHS)
('18) 71 → ('19) 64 → ('20) 63 (자료: EIU)

성장잠재력

원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기준 세계 8위의 자원 부국

- BP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는 2018년 말 기준 978억 배럴의 원유(세계 8위) 및 5.9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8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이는 2018년도의 평균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원유 및 천연가스를 향후 각각 68년 및 92년 간 생산 가능한 규모임.
- 다만, 국제유가 부양을 위한 OPEC+ 감산정책으로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 중 일평균 9.6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였으며, 2020년에는 일평균 6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 감산할 예정인 바, 국제유가 회복 전에는 풍부한 원유 확인매장량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석유 부문이 GDP의 26%를 차지하는 등 높은 석유 의존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바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OPEC+ 감산 합의 내용

(단위 : 천 배럴/일)

| 구분 | 생산 능력 | 감산* | 추가 감산** | 감산 후 생산량 |
|--------|--------|--------|---------|----------|
| 아랍에미리트 | 3,168 | -96 | -60 | 3,012 |
| 전 체 | 45,650 | -1,195 | -503 | 43,952 |

* 175차 OPEC 회의 및 5차 OPEC+ 석유장관 회의

** 177차 OPEC 회의 및 7차 OPEC+ 석유장관 회의

정책성과

두바이 EXPO 2020 개최

- 두바이는 EXPO 2020 개최에 대비하여 EXPO 부지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EXPO 개최로 대규모 관광객 유입에 따른 서비스 부문 수입(收入) 증가가 기대됨. 아울러, EXPO 2020 개최가 건설·수송·관광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향후 비석유 부문에 의한 경제성장 및 외국자본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개방적 시장경제체제 운영으로 외국자본 유입 증가

- 아랍에미리트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기업 및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환거래 및 본국 송금 등에 제약이 없는 등 기업 친화적인 제도 운영으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기업경쟁력 세계 16위(역내 1위)를 차지함.
- 아울러 40여 개의 자유무역지역(Free Zone)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소유를 100%까지 허용(이외 지역은 49% 이내로 제한)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꾸준히 증가해 옴. 2018년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385백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08년 | 2011년 | 2015년 | 2018년 |
|---------|--------|--------|-------|--------|
| 아랍에미리트 | 5,063 | 7,152 | 8,551 | 10,385 |
| 사우디아라비아 | 39,456 | 16,308 | 8,141 | 3,209 |

자료 : UNCTAD

- 2019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농업·신재생에너지·엔터테인먼트·건설·운송 등 업종에 대해서 자유무역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소유를 100%까지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자 및 의료·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 앞 장기 거주비자를 제공하여 외국자본 유입, 비석유 부문 육성 및 산업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처럼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과·효과는 여전히 높은 석유산업 의존도 및 국제 유가 약세에 따른 석유 부문 부진으로 인해 희석될 전망이다.

정치동향

1971년 연방 창립 이래 토후국 간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국 유지

- 최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군주 Khalifa bin Zayed Al Nahyan이 연방정부 대통령으로서 두바이를 비롯한 나머지 6개 토후국의 왕조로부터 지지를 받아 안정적으로 집권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됨.
- Khalifa 대통령(1948년생, 71세)의 건강 악화로 그의 이복동생인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가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유고시 왕위 및 대통령직 계승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두바이를 제외한 5개 북부 토후국들은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아부다비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사회동향

급진 이슬람 세력에 대한 강력 단속 등으로 사회 안정 유지

- 아랍에미리트는 급진 이슬람 세력의 반정부 활동을 테러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검열으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보조금 등 풍부한 복지혜택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시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임.

국제관계

미국·사우디아라비아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한 동맹관계, 카타르와는 단교 지속

- 아랍에미리트의 공군 및 해군기지 등에 미군이 주둔하는 등 미국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대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과 대립 하자 미국의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 역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됨.
- 아랍에미리트는 역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연합하여 예멘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예멘 정부 지원)하여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반군과 군사적으로 대립하여 왔으나, 2019년 10월 예멘으로부터 자국 병력을 일부 철수함. 아랍에미리트의 병력 철수배경을 두고 이란 위협에 대한 자국 방어 또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 시도 등 다양한 분석이 존재함.
 - 예멘 내전의 역학관계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정부를 전폭 지지하는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남부 예멘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여 동맹관계 내부의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음.
- 걸프 지역 6개(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수니파 왕정국가들은 걸프협력회의(GCC)를 결성하며 회원국 간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해왔으나, 카타르의 무슬림 형제단(급진 이슬람 세력) 비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과 함께 카타르와 단교한 이후 현재까지 단교 상태를 지속 중임.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2019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 224억 3,730만 달러(단기 39억 5,900만 달러, 중장기 184억 7,830만 달러) 중 연체잔액은 7,620만 달러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OECD | 2등급 (2019.01) | 2등급 (2018.01) |
| Moody's | Aa2 (2019.05) | Aa2 (2018.05) |
| Fitch ^{주)} | AA (2019.10) | AA (2018.11) |

주) 아부다비 신용등급

OECD,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UAE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

- OECD는 2013년 1월 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UAE의 신용등급을 계속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 평가일 현재 Moody's는 UAE의 신용등급을 Aa2로 평가하고 있으며, Fitch는 UAE의 신용등급은 평가하지 않는 대신 아부다비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음.
- 아부다비는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가장 큰 면적(약 81% 차지) 및 원유 매장량의 절대적 비중(95%)을 보유하여, 재정 기여도 측면에서 제2위 경제규모의 두바이(면적 5%, 자원 매장량 4%)와도 격차가 크며 이외 토후국들의 재정적자 보전을 담당하는 등 연방정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GDP 및 소득수준을 이루었으며 국제유가 부진 장기화(배럴당 60달러 내외)에도 불구하고 국내총투자 증가 및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 다만, 국제유가가 호황이었던 2011~13년(배럴당 100달러 상회)에 비해서는 경제가 위축되었으며, 석유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친화적, 개방적 경제정책(낮은 법인세, 외환거래의 자율성, 안정적 환율관리 등)은 외국자본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음.